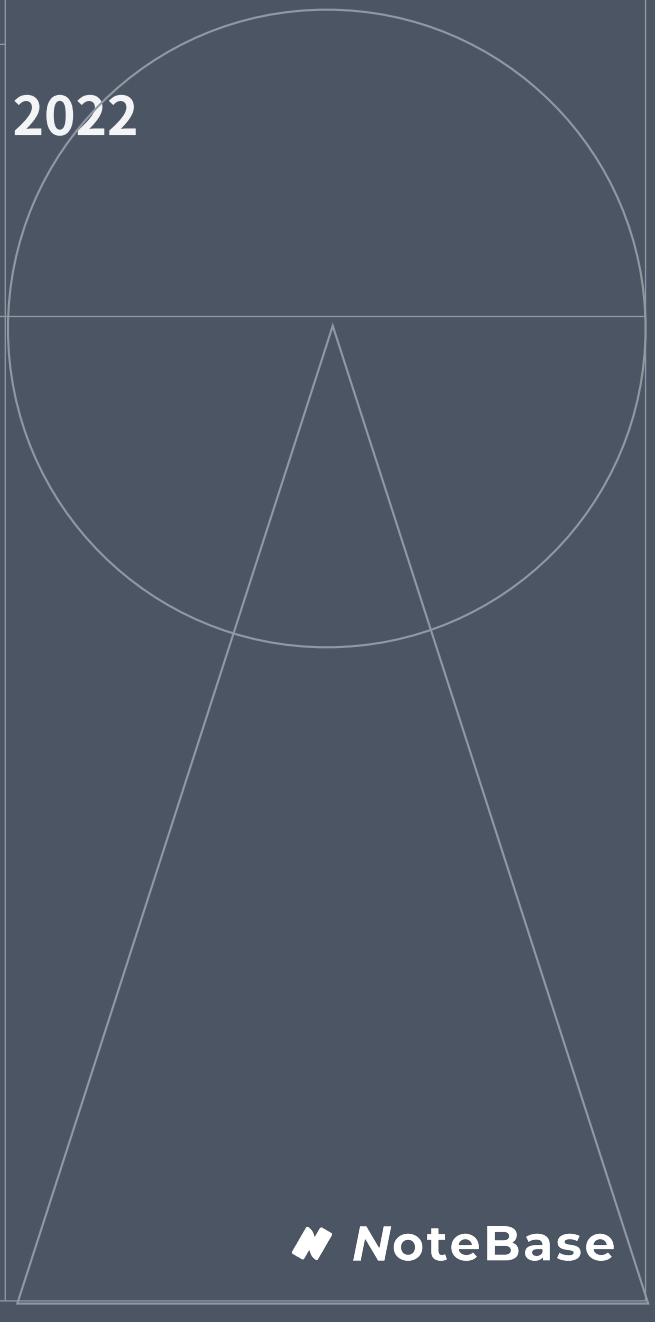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국어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국어 · 2022

공무원/군무원/9급 · 국어 · 2022

1.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난 달에 나는 딸도 만날겸 여행도 할겸 미국에 다녀왔어.
   ② 이 회사의 경비병들은 물 샐 틈없이 경비를 선다.
   ③ 저 사과들 중에서 좀더 큰것을 주세요.
   ④ 그 사람은 감사하기는 커녕 적게 주었다고 원망만 하더라.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어·합성어·의존 명사·조사의 띄어쓰기 원칙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의존 명사 '겸'과 '것'은 앞말과 띄어 쓰고, 한 단어로 굳어진 '지난달'과 '물샐틈없이'는 붙여 쓴다. 조사 '는커녕'도 앞말에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지난 달', '만날겸', '할겸'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지난달'은 한 단어이므로 붙이고, 의존 명사 '겸'은 앞말과 띄어 '지난달에 나는 딸도 만날 겸 여행도 할 겸 미국에 다녀왔어.'라고 써야 한다.
② X — '물 샐 틈없이'가 잘못되었다. '조금도 빈틈이 없이'라는 뜻의 '물샐틈없이'는 한 단어이므로 '이 회사의 경비병들은 물샐틈없이 경비를 선다.'라고 써야 한다.
③ O — '좀 더'는 두 부사를 띄어 썼고,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관형어 '큰'과 띄어 썼다. '저 사과들 중에서 좀 더 큰 것을 주세요.'의 띄어쓰기가 옳다.
④ X — '감사하기는 커녕'에서 조사 '는커녕'을 앞말과 띄어 쓴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 사람은 감사하기는커녕 적게 주었다고 원망만 하더라.'라고 써야 한다.

오답 포인트

'겸'과 '것'은 의존 명사라 띄어 쓰지만, '는커녕'은 조사라 붙여 쓴다. 또한 여러 말처럼 보이더라도 사전에 한 단어로 굳어진 '지난달', '물샐틈없이'는 붙여 써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조사인지 의존 명사인지 판단한다. 조사는 앞말에 붙이고 의존 명사는 띄어 쓴 뒤, 합성어로 굳어진 한 단어인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겸·것’은 띄고, 조사 ‘는커녕’은 붙이며, ‘지난달·물샐틈없이’는 한 단어로 붙인다.

NoteBase

2. 다음 중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 것은?
① 교육자답다
② 살펴보다
③ 탐스럽다
④ 순수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어근에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와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진 합성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고,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다. '-답다', '-스럽다', '-하다'처럼 어근 뒤에 붙어 새 단어를 만드는 요소는 접미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교육자답다'는 명사 '교육자'에 접미사 '-답다'가 붙은 파생어이다. 틀린 판단은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다'이며, 올바르게는 '접미사에 의해 만들어진 파생어이다'이다.
② O — '살펴보다'는 '살피다'와 '보다'의 어근이 연결 어미 '-어'를 사이에 두고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다.
③ X — '탐스럽다'는 명사 '탐'에 접미사 '-스럽다'가 붙은 파생어이다. 틀린 판단은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다'이며, 올바르게는 '접미사에 의해 만들어진 파생어이다'이다.
④ X — '순수하다'는 명사 '순수'에 접미사 '-하다'가 붙은 파생어이다. 틀린 판단은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다'이며, 올바르게는 '접미사에 의해 만들어진 파생어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살펴보다'를 하나의 어근에 접사가 붙은 말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살피다'와 '보다'라는 두 용언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또한 발문이 '아닌 것'을 묻고 있으므로 파생어가 아닌 ②를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어를 나눈 뒤 실질적인 뜻을 가진 어근이 둘이면 합성어로 판단하고, 어근 하나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었으면 파생어로 판단한다. 마지막에는 발문의 긍정·부정 표현을 다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어근+접사=파생어, 어근+어근=합성어이다.

NoteBase

3. 다음 중 사자성어가 가장 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것은?
① 견강부회(牽强附會) 하지 말고 타당한 논거로 반박을 하세요.
② 그는 언제나 호시우보(虎視牛步) 하여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
③ 함부로 도청도설(道聽塗說)에 현혹되어 주책없이 행동하지 마시오.
④ 이번에 우리 팀이 크게 이긴 것을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여기자.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사자성어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고, 그 뜻이 문장의 상황과 자연스럽게 맞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견강부회(牽强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 주장에 맞추는 것이다.
호시우보(虎視牛步):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살피고 소처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도청도설(道聽塗說): 길에서 들은 말을 곧바로 길에서 옮긴다는 뜻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들은 말을 퍼뜨리는 태도를 이른다.
전화위복(轉禍爲福): 화가 되는 일을 바꾸어 복이 되게 하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견강부회하지 말고 타당한 논거로 반박하라'는 말은 억지 논리를 피하라는 뜻이므로 문맥에 맞는다.
② O — 훌륭한 리더가 예리하게 상황을 살피면서도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뜻으로 '호시우보'를 쓴 것이 적절하다.
③ O — 함부로 들은 말에 현혹되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문맥은 피상적으로 듣고 퍼뜨리는 '도청도설'의 뜻과 통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이미 크게 이긴 일을 '전화위복으로 여기자'라고 한 표현이다. 전화위복은 재앙이나 실패 같은 불리한 일이 오히려 좋은 결과로 바뀐 상황에 쓰므로, 단순한 승리를 축하하는 장면에는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이번 패배를 계기로 더 강해진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고 쓸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④의 '복'만 보고 좋은 일을 모두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전화위복에는 먼저 '화', 즉 불행이나 위기가 있고 그것이 '복'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자성어를 글자 일부의 긍정적·부정적 느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어가 요구하는 상황의 흐름까지 문장과 대조한다. 특히 전화위복은 '위기·불행 → 좋은 결과'의 전환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전화위복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화를 바꾸어 복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NoteBase

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오래된 나사여서 마모가 심해 빼기 어렵다.
② 평소 절차탁마에 힘써야 대기만성에 이를 수 있다.
③ 정신을 수양하고 심신을 연마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④ 너무 열중하여 힘을 주다 보니 근육이 마비되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음이 같은 한자어에서 밑줄 친 '마'가 어떤 한자로 쓰였는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磨는 '갈 마'로, 물건을 갈거나 학문·몸과 마음을 갈고닦는다는 뜻이다. 痲는 '저릴 마'로, 감각이나 운동 기능이 마비된 상태와 관련된다. '마비'는 麻痺로도 적지만, 이때의 麻 역시 磨와 다른 한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마모'의 '마'는 磨(갈 마)이다. 나사 표면이 닳는다는 뜻이므로 ②·③과 같은 한자이다. 틀린 판단은 '①의 마가 나머지와 다르다'이며, 올바르게는 '①의 마는 ②·③과 같은 磨이다.'이다.
② X — '절차탁마'의 '마'는 磨(갈 마)이다. 옥이나 돌을 갈고닦듯 학문과 덕행을 닦는다는 뜻이므로 ①·③과 같은 한자이다. 틀린 판단은 '②의 마가 나머지와 다르다'이며, 올바르게는 '②의 마는 ①·③과 같은 磨이다.'이다.
③ X — '연마'의 '마'는 磨(갈 마)이다. 심신을 갈고닦는다는 뜻이므로 ①·②와 같은 한자이다. 틀린 판단은 '③의 마가 나머지와 다르다'이며, 올바르게는 '③의 마는 ①·②와 같은 磨이다.'이다.
④ O — '마비'의 '마'는 痲(저릴 마)이며 麻로도 쓴다. 감각이나 운동 기능을 잃는다는 뜻으로, ①·②·③의 磨와 다른 한자이므로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네 선지의 밑줄 친 글자가 모두 '마'로 발음되어 같은 한자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①의 '닳다', ②·③의 '갈고닦다'는 磨에 연결되고, ④의 '마비되다'는 痲 또는 麻에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같은 음의 한자를 묻는 문제에서는 밑줄 친 음만 보지 않고 단어 전체의 뜻을 확인한다. '갈다·닦다'의 의미이면 磨, '저리거나 기능을 잃다'의 의미이면 痲 또는 麻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마모·절차탁마·연마는 磨, 마비는 痲(또는 麻)이다.

NoteBase

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①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
② 한번은 네거리에서 큰 사고를 낼 뻔했다.
③ 고 녀석, 울음소리 한번 크구나.
④ 심심한데 노래나 한번 불러 볼까?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횟수를 나타내는 '한 번'과 '어떤 때·시험 삼은 시도·강조'의 뜻으로 쓰이는 '한번'의 띄어쓰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 번'은 수 관형사 '한'과 단위성 의존 명사 '번'이 결합하여 횟수 1회를 나타내므로 띄어 쓴다. '한번'은 '지난 어느 때',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 또는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으로 쓰일 때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실패'의 횟수가 1회임을 나타내므로 '한번'이 잘못되었다. '한 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로 고쳐 쓴다.
② O — '한번은'은 '지난 어느 때에는'이라는 뜻이므로 붙여 쓴다.
③ O — '울음소리가 매우 크다'는 상태를 강조하는 '한번'이므로 붙여 쓴다.
④ O — 노래 부르기를 시험 삼아 해 보자는 뜻의 '한번'이므로 붙여 쓴다.

오답 포인트

모든 '한번'을 횟수 표현으로 보아 띄어 쓰기 쉽다. 그러나 ②는 '어느 때', ③은 '강조', ④는 '시험 삼은 시도'의 뜻이어서 붙여 쓴다. ①만 실제 횟수 1회를 나타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의 '한번'을 '한 차례'로 바꾸어 횟수 1회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한 번'으로 띄어 쓴다. '언젠가·시험 삼아·아주'의 뜻이면 '한번'으로 붙여 쓴다.

암기 포인트

횟수 1회는 '한 번', 어느 때·시도·강조는 '한번'이다.

NoteBas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7)

> 인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으며, 인류의 기적 같은 진화는 유대, 기독교, 이슬람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초월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됐거나 힌두, 불교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가치는 동물의 가치와 근원적으로 차별되지 않으며, 그의 존엄성은 다른 동물의 존엄성과 근본적으로 차등지을 수 없다. 자연은 한없이 아름답고 자비롭다. 미국 원주민이 대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자연은 모든 생성의 원천이자 젖줄이다. 그것은 대자연 즉 산천초목이 보면 볼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선하고 풍요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무한히 조용하면서도 생기에 넘치고, 무한히 소박하면서도 환상적으로 아름답고 장엄하고 거룩한 모든 것들의 모체이자 그것들 자체이다. 자연은 영혼을 가진 인류를 비롯한 유인원, 그 밖의 수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 및 신비롭고 거룩한 모든 생명체의 고향이자 거처이며, 일터이자 휴식처이고, 행복의 둥지이며, 영혼을 가진 인간이 태어났던 땅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모든 존재의 터전인 동시에 그 원리이며 그러한 것들의 궁극적 의미이기도 하다. 자연은 생명 그 자체의 활기,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의 표상이다. 또한 그것은 인간이 배워야 할 진리이며 모든 행동의 도덕적 및 실용적 규범이며 지침이며 길이다. 자연은 정복과 활용이 아니라 감사와 보존의 대상이다.

6. 다음 중 위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글쓴이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낭만주의자(浪漫主義者)
   ② 자연주의자(自然主義者)
   ③ 신비주의자(神秘主義者)
   ④ 실용주의자(實用主義者)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글쓴이가 자연을 인간의 이용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하고 보전해야 할 존재로 보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자연주의자: 이 글의 문맥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의 내재적 가치와 생명 공동체의 보전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키워드는 인간 중심주의의 부정, 인간과 동물의 근원적 동등성, 자연의 고유한 가치, 감사와 보전이다.
낭만주의자는 감정과 상상, 자연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중시하고, 신비주의자는 초월적 실재를 직관하거나 그것과 합일하는 체험을 중시하며, 실용주의자는 실제 효용과 결과를 판단의 중심에 둔다.

선지별 해설

① X — '낭만주의자'가 적절하지 않다. 글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표현은 있지만, 중심 주장은 자연의 내재적 가치와 인간·동물의 근원적 동등성, 자연 보전이다. 올바르게는 '자연주의자'이다.
② O — 글쓴이는 인류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자연은 인간의 정복·활용 대상이 아니라 감사와 보전의 대상이라고 본다. 자연 자체의 가치와 생명 공동체를 중시하므로 자연주의자의 성격이 가장 적절하다.
③ X — '신비주의자'가 적절하지 않다. '신비롭고 거룩한'이라는 표현은 생명에 대한 존중을 나타낼 뿐, 초월적 실재와의 합일이나 신비적 체험을 중심 주장으로 삼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자연주의자'이다.
④ X — '실용주의자'가 적절하지 않다. 글쓴이는 자연을 효용에 따라 평가하거나 활용하려는 태도를 오히려 부정하고 감사와 보전을 주장한다. 올바르게는 '자연주의자'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아름답고 자비롭다'는 표현만 보면 ① 낭만주의자로, '신비롭고 거룩한'이라는 표현만 보면 ③ 신비주의자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반복되는 핵심 논지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 인간과 다른 생명의 동등성, 정복·활용의 거부와 보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부 수식어보다 글 전체에서 반복되는 가치 판단과 결론을 기준으로 성격을 판별한다. 인간 중심주의 부정, 자연의 고유한 가치 인정, 생명 존중, 보전 강조가 함께 나타나면 자연주의적 태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연은 이용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생명 공동체이며, 정복·활용이 아니라 감사·보전의 대상이라는 관점이 자연주의이다.

NoteBas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7)

> 인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으며, 인류의 기적 같은 진화는 유대, 기독교, 이슬람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초월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됐거나 힌두, 불교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가치는 동물의 가치와 근원적으로 차별되지 않으며, 그의 존엄성은 다른 동물의 존엄성과 근본적으로 차등지을 수 없다. 자연은 한없이 아름답고 자비롭다. 미국 원주민이 대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자연은 모든 생성의 원천이자 젖줄이다. 그것은 대자연 즉 산천초목이 보면 볼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선하고 풍요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무한히 조용하면서도 생기에 넘치고, 무한히 소박하면서도 환상적으로 아름답고 장엄하고 거룩한 모든 것들의 모체이자 그것들 자체이다. 자연은 영혼을 가진 인류를 비롯한 유인원, 그 밖의 수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 및 신비롭고 거룩한 모든 생명체의 고향이자 거처이며, 일터이자 휴식처이고, 행복의 둥지이며, 영혼을 가진 인간이 태어났던 땅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모든 존재의 터전인 동시에 그 원리이며 그러한 것들의 궁극적 의미이기도 하다. 자연은 생명 그 자체의 활기,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의 표상이다. 또한 그것은 인간이 배워야 할 진리이며 모든 행동의 도덕적 및 실용적 규범이며 지침이며 길이다. 자연은 정복과 활용이 아니라 감사와 보존의 대상이다.

7. 위 글의 구성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두괄식 ② 양괄식
③ 미괄식 ④ 중괄식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글의 중심 생각이 처음·중간·끝 중 어디에 제시되는지를 바탕으로 구성 방식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두괄식은 중심 생각을 글의 처음에, 미괄식은 끝에, 중괄식은 중간에 제시하는 구성이다. 양괄식은 중심 생각을 처음과 끝에 거듭 제시하는 구성이다. 이 글은 인간 중심적 관점을 비판하고 자연의 가치와 의미를 차례로 설명한 뒤, 마지막 문장인 '자연은 정복과 활용이 아니라 감사와 보존의 대상이다.'에서 중심 생각을 분명히 밝힌다.

선지별 해설

① X — 두괄식은 중심 생각이 글의 처음에 제시되는 방식이다. 이 글의 첫 문장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논의를 시작할 뿐, 자연을 감사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전체 중심 생각을 완결하여 제시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두괄식'은 '미괄식'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양괄식은 같은 중심 생각이 글의 처음과 끝에 모두 제시되는 방식이다. 이 글은 처음과 끝에서 중심 생각을 반복하지 않고 마지막에 결론을 제시한다. 틀린 표현 '양괄식'은 '미괄식'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글의 앞부분과 중간 부분에서 자연의 가치와 의미를 여러 측면으로 설명한 뒤, 마지막 문장에서 자연은 정복과 활용이 아니라 감사와 보존의 대상이라는 중심 생각을 제시하므로 미괄식이다.
④ X — 중괄식은 중심 생각이 글의 중간에 제시되는 방식이다. 이 글의 중간 부분은 자연이 생명의 원천이자 고향·휴식처·행동의 규범이라는 근거를 나열하며, 최종 중심 생각은 끝에 제시된다. 틀린 표현 '중괄식'은 '미괄식'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첫 문장이 강한 단정으로 시작한다는 이유만으로 두괄식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첫 문장은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도입이고, 글 전체를 묶는 결론은 마지막의 '감사와 보존의 대상'이라는 문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문단과 문장을 포괄하는 중심 생각을 먼저 찾고, 그 생각이 처음에 있으면 두괄식, 끝에 있으면 미괄식, 처음과 끝에 반복되면 양괄식, 중간에 있으면 중괄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처음은 두괄, 끝은 미괄, 처음과 끝은 양괄, 가운데는 중괄이다.

NoteBase

8. 다음 중 아래의 글을 읽고 추론한 라캉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라캉에 의하면, 사회화 과정에 들어서기 전의 거울 단계에서, 자기와 자기 영상, 혹은 자기와 어머니 같은 양자 관계에 새로운 타인, 다시 말해 아버지, 곧 법으로서의 큰 타자가 개입하는 삼자 관계, 즉 상징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 형성은 제3자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비집고 들어섬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상징적 질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미 그 질서가 구조적으로 인간에게 기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후천적, 인위적으로 그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은 단지 구조되어 있는 그 질서에 참여할 뿐이다.
>
> 말하자면 구조란 의식되지 않는 가운데 인간 문화의 기저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캉에게 있어서, 주체의 존재 양태는 무의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다. 주체 자체가 무의식적인 것으로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주체는 무의식적 주체이다.
>
> 라캉에게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 그는 나의 사유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라캉의 경우, '나는 생각한다'라는 의식이 없는 곳에서 '나는 존재'하고, 또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캉은 무의식은 타자의 진술이라고 말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언어 활동에서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타자로부터 발원되어 우리에게 온 것이다. '무의식은 주체에 끼치는 기표의 영향'이라고 라캉은 말한다.
>
> 이런 연유에서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논리가 라캉에게 성립된다. 의식의 차원에서 '내가 스스로 주체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허상이다. 실상은, 나의 진술은 타자의 진술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이다. 나의 욕망도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구성된다. 내가 스스로 원한 욕망이란 성립하지 않는다.

① 주체의 무의식은 구조화된 상징적 질서에 의해 형성된다.
② 주체의 의식적 사유와 행위에 의해 새로운 문화 질서가 창조된다.
③ 대중매체의 광고는 주체의 욕망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④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옳지 않다.

정답 2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라캉이 말한 상징적 질서, 무의식적 주체, 타자의 욕망을 이해하고 각 선지가 지문의 관점과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라캉: 상징적 질서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보다 앞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인간은 그 질서에 참여하면서 무의식적 주체로 형성된다. 또한 개인의 말과 욕망은 타자의 진술과 욕망에 의해 구성된다.
데카르트의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의식적 사유를 존재 확인의 토대로 삼는다. 그러나 지문의 라캉은 생각하는 '나'와 존재하는 '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명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지문은 상징적 질서가 이미 구조적으로 인간에게 기능하며, 주체 자체가 무의식적인 것으로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주체의 무의식이 구조화된 상징적 질서에 의해 형성된다는 진술은 지문과 부합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주체의 의식적 사유와 행위에 의해 새로운 문화 질서가 창조된다'이다. 지문은 인간이 후천적·인위적으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조화된 상징적 질서에 참여할 뿐이라고 본다. 올바르게는 '주체는 이미 구조화된 문화의 상징적 질서에 참여하며 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이다.
③ O — 지문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에 의해 구성된다. 대중매체의 광고는 타자로부터 온 메시지로서 주체가 무엇을 원하게 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문의 관점에서 추론할 수 있다.
④ O — 지문은 '나는 생각한다'라는 의식이 없는 곳에서 '나는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의식적 사유와 존재를 곧바로 일치시키는 데카르트의 명제가 라캉에게 그대로 옳지 않다는 진술은 지문과 부합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②의 '의식적 사유와 행위', '새로운 문화 질서가 창조된다'는 표현은 능동적인 인간관처럼 보여 그럴듯하다. 그러나 지문의 핵심은 그 반대로, 상징적 질서가 개인보다 먼저 구조화되어 있고 주체는 그 질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라캉 관련 선지는 '질서가 주체보다 선행하는가', '주체가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가', '욕망과 진술이 타자에게서 오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체가 의식적으로 질서를 새로 창조한다고 하면 지문의 관점과 반대이다.

암기 포인트

라캉은 '상징적 질서가 먼저, 주체는 무의식적으로 형성, 욕망은 타자의 욕망'으로 연결한다.

NoteBase

9. 다음 중 아래 시의 주제로 가장 옳은 것은?

바람결보다 더 부드러운 은빛 날리는
가을 하늘 현란한 광채가 흘러
양양한 대기에 바다의 무늬가 인다.

한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천지의 감동 속에
찬연히 피어난 백일(白日)의 환상을 따라
달음치는 하루의 분방한 정념에 헌신된 모습

생의 근원을 향한 아폴로의 호탕한 눈동자같이
황색 꽃잎 금빛 가루로 겹겹이 단장한
아! 의욕의 씨 원광(圓光)에 묻힌 듯 향기에 익어 가니

한줄기로 지향한 높다란 꼭대기의 환희에서
순간마다 이룩하는 태양의 축복을 받는 자
늠름한 잎사귀들 경이(驚異)를 담아 들고 찬양한다.

-김광섭, <해바라기>

① 자연과 인간의 교감
② 가을의 정경과 정취
③ 생명에 대한 강렬한 의욕
④ 환희가 넘치는 삶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에 반복되는 핵심 시어와 화자의 태도를 종합하여 중심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의 주제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생각이나 정서이다. 이 시에서는 '생의 근원', '의욕의 씨', '태양의 축복', '찬양'이 생명력의 근원을 향한 강렬한 동경과 의욕을 드러낸다. 가을 하늘과 꽃잎 등의 자연물은 그 주제를 형상화하는 소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 중심 주제라는 표현이 틀렸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정서를 주고받는 모습보다, 자연물을 통해 생명의 근원을 향한 화자의 열망을 드러낸다. 올바르게는 '자연물을 통해 드러난 생명의 근원을 향한 열망'이다.
② X — '가을의 정경과 정취'에 초점을 둔 표현이 틀렸다. 가을 하늘과 황색 꽃잎은 배경 묘사에 머물지 않고 생명력과 의욕을 환기한다. 올바르게는 '가을의 자연물을 매개로 고양되는 생명에 대한 의욕'이다.
③ O — 화자는 '생의 근원을 향한 아픔', '의욕의 씨', '태양의 축복' 등의 표현으로 생명의 근원을 향한 강렬한 의욕을 드러내므로 가장 적절하다.
④ X — '환희가 넘치는 삶'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환희'가 나타나지만 이는 삶의 즐거움 자체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과 태양의 축복을 찬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서이다. 올바르게는 '생명의 근원을 향한 강렬한 의욕과 찬양'이다.

오답 포인트

자연 소재가 많다는 이유로 ①이나 ②를 고르거나, '환희' 한 단어만 보고 ④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주제는 일부 소재나 정서 하나가 아니라 작품 전체에서 반복·강조되는 의미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목이나 특정 시어 하나에만 기대지 않고, 반복되는 핵심 시어와 마지막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의미를 찾는다. 자연물은 주제 자체인지, 주제를 드러내는 소재인지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소재는 가을의 자연, 주제는 생명의 근원을 향한 강렬한 의욕이다.

NoteBase

10. 다음 중 아래 글의 제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정치권의 통합 방정식', '경영에서의 성공 방정식', '영화의 흥행 방정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애용된다. 수학의 방정식은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문자의 값에 따라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합 방정식의 경우, 통합을 하는 데 여러 변수가 있고 변수에 따라 통합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으므로 방정식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적절하다.
>
> 그런데 방정식은 '변수가 많은 고차 방정식', '국내·국제·남북 관계의 3차 방정식'이란 표현에서 보듯이 차수와 함께 거론되기도 한다. 엄밀하게 따지면 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차수는 무관하다. 변수가 1개라도 고차 방정식이 될 수 있고 변수가 많아도 1차 방정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개수에 따라 m원 방정식으로, 상황의 복잡도에 따라 n차 방정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4차 방정식까지는 근의 공식, 즉 일반해가 존재하므로 해를 구할 수 없을 정도의 난맥상이라면 5차 방정식 이상이라는 표현이 안전하다.

① 수학 용어의 올바른 활용
② 실생활에서의 수학 공식의 적용
③ 방정식의 정의와 구성 요소
④ 수학 용어의 추상성과 엄밀성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글의 중심 화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내용을 가장 넓고 정확하게 포괄하는 제목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적절한 제목은 글에서 반복해 설명하는 중심 내용을 포괄해야 한다. 이 글은 '방정식'이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양상을 소개한 뒤, 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차수는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상황에 맞게 구분하여 표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중심 내용은 수학 공식의 실제 적용이나 방정식의 구성 자체가 아니라 수학 용어인 '방정식'의 올바른 활용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글은 '방정식'이라는 수학 용어가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사례를 들고, 변수의 개수와 차수를 혼동한 표현을 바로잡는다. '수학 용어의 올바른 활용'은 글 전체를 가장 잘 포괄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수학 공식의 적용'이다. 글은 실생활 문제에 수학 공식을 직접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여러 분야에서 수학 용어인 방정식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정의와 구성 요소'이다. 방정식의 뜻은 도입부에서 간단히 제시될 뿐이며, 구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방정식의 변수 개수와 차수를 구별한 올바른 용어 사용'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추상성과 엄밀성'이다. 글은 수학 용어의 철학적 성격이나 수학의 엄밀성을 논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방정식이라는 수학 용어를 다른 분야에서 정확하게 활용하는 문제'이다.

오답 포인트

도입부의 '방정식' 정의만 보고 ③을 고르거나, 수학과 실생활이 함께 언급되었다는 이유로 ②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글의 후반부가 길게 강조하는 내용은 변수의 개수와 차수를 혼동한 표현의 문제와 그 개선 방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목을 고를 때는 도입부의 한 문장보다 글 전체에서 반복되고 결론에서 강조된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다. 일부 내용만 가리키거나 글에 없는 논점으로 범위를 넓힌 제목은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제목은 '도입의 소재'가 아니라 '본문과 결론을 관통하는 중심 내용'이다.

NoteBase

11. 다음 중 ㉠ ~ ㉢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이 눈 속으로 들어가면서 각막과 수정체에 의해 굴절되어 망막의 앞쪽에 초점을 맺게 되면 망막에는 초점이 맞지 않는 상이 맺힘으로써 먼 곳의 물체가 흐리게 보인다. 이것을 근시라고 한다.
>
> 근시인 눈에서 보고자 하는 물체가 눈에 가까워지면 망막의 (㉠)에 맺혔던 초점이 (㉡)으로 이동하여 망막에 초점이 맺혀 흐리게 보이던 물체가 선명하게 보인다. 그리고 이 지점보다 더 가까운 곳의 물체는 조절 능력에 의하여 계속 잘 보인다.
>
> 이와 같이 근시는 먼 곳의 물체는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곳의 물체는 잘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근시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눈 속에 맺히는 초점이 망막으로부터 (㉢)으로 멀어져 가까운 곳의 잘 보이는 거리가 짧아지고 근시의 정도가 약하면 꽤 먼 곳까지 잘 볼 수 있다.

	㉠	㉡	㉢
①	앞쪽	뒤쪽	앞쪽
②	뒤쪽	앞쪽	앞쪽
③	앞쪽	뒤쪽	뒤쪽
④	뒤쪽	앞쪽	뒤쪽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근시인 눈에서 물체가 가까워질 때 초점이 이동하는 방향과 근시가 심해질수록 초점이 망막에서 멀어지는 방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근시는 먼 곳의 물체에서 온 빛의 초점이 망막 앞쪽에 맺혀 먼 곳이 흐리게 보이는 상태이다.
물체가 눈에 가까워지면 초점은 망막 앞쪽에서 뒤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망막에 맞을 수 있다. 반면 근시가 심할수록 먼 물체의 초점은 망막보다 더 앞쪽에 맺히므로 망막에서 앞쪽 방향으로 더 멀어진다. 따라서 ㉠은 앞쪽, ㉡은 뒤쪽, ㉢은 앞쪽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 앞쪽, ㉡ 뒤쪽, ㉢ 앞쪽의 배열이 모두 맞는다. 먼 물체의 초점은 망막 앞쪽에 있고, 물체가 가까워지면 초점이 뒤쪽으로 이동하며, 근시가 심할수록 초점은 망막에서 앞쪽으로 더 멀어진다.
② X — '㉠ 뒤쪽－㉡ 앞쪽'이 틀렸다. 실제로는 먼 물체의 초점이 망막 앞쪽에 있다가 물체가 가까워질수록 뒤쪽으로 이동하므로 '앞쪽－뒤쪽－앞쪽'이 맞다.
③ X — '㉢ 뒤쪽'이 틀렸다. 근시가 심할수록 초점은 망막보다 더 앞쪽에 맺히므로 ㉢은 앞쪽이며, 올바른 배열은 '앞쪽－뒤쪽－앞쪽'이다.
④ X — '㉠ 뒤쪽－㉡ 앞쪽－㉢ 뒤쪽'이 모두 방향을 반대로 제시한 표현이다. ㉠은 앞쪽, ㉡은 뒤쪽, ㉢은 앞쪽이므로 올바른 배열은 '앞쪽－뒤쪽－앞쪽'이다.

오답 포인트

'물체가 가까워질 때 초점이 뒤쪽으로 이동한다'는 변화와 '근시가 심할수록 먼 물체의 초점이 망막 앞쪽으로 더 멀어진다'는 상태를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틀리기 쉽다. 특히 ㉡과 ㉢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 물체가 흐린 근시는 먼저 '초점이 망막 앞쪽'이라고 정한다. 그다음 물체가 가까워지면 초점은 뒤쪽으로 이동하고, 근시가 심해지면 먼 물체의 초점은 망막에서 앞쪽으로 더 멀어진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근시의 먼 초점은 망막 앞쪽, 가까운 물체의 초점 이동은 뒤쪽, 심한 근시의 초점 이탈은 앞쪽이다.

NoteBase

12. 다음 중 ㉠을 가리키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허, 참, 세상 일두……."
>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 "윤초시댁두 말이 아니어. ㉠그 많든 전답을 다 팔아 버리구, 대대루 살아오든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드니, 또 악상꺼지 당하는 걸 보면……."
> 남폿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 "증손이라곤 기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 "그렇지. 사내애 둘 있든 건 어려서 잃구……."
> "어쩌믄 그렇게 자식복이 없을까."
>
> -황순원, <소나기> 중에서

① 雪上加霜
② 前虎後狼
③ 禍不單行
④ 孤掌難鳴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밑줄 친 상황이 '불행이 잇따라 겹침'을 나타낸다는 점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지 않는 한자 성어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서리가 더해진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 계속 겹치는 상황을 이른다.
전호후랑(前虎後狼)은 앞의 호랑이를 막자 뒤에서 이리가 온다는 뜻으로, 한 재앙이 지나가자 또 다른 재앙이 닥치는 상황을 이른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은 화가 홀로 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행이 잇따라 생기는 상황을 이른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은 한 손바닥만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뜻으로, 혼자 힘으로는 일을 이루기 어렵거나 상대가 없으면 다툼도 성립하지 않음을 이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설상가상(雪上加霜)은 어려운 일 위에 또 어려운 일이 겹친다는 뜻이다. 전답과 집을 잃은 데 이어 악상까지 당한 상황에 적절하다.
② O — 전호후랑(前虎後狼)은 한 가지 재앙을 피하거나 겪은 뒤 또 다른 재앙이 닥친다는 뜻이다. 불행이 연이어 생긴 상황에 적절하다.
③ O — 화불단행(禍不單行)은 화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잇따라 온다는 뜻이다. 여러 불행이 계속된 상황에 적절하다.
④ X — 고장난명(孤掌難鳴)은 '불행이 거듭됨'이 아니라 '혼자 힘으로는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뜻하므로 밑줄 친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 틀린 표현은 고장난명이며, 올바르게는 설상가상이나 화불단행처럼 불행이 겹친다는 뜻의 성어를 사용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지문 뒤의 '자식복이 없다'는 말에 이끌려 '외로운 처지'를 떠올리면 ④를 상황에 맞는 말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은 아버지가 전답과 집을 잃고 악상까지 당한 일을 가리키므로 판단 기준은 외로움이 아니라 불행의 연속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밑줄 속 사건의 공통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 나쁜 일이 연속되거나 겹치면 설상가상·전호후랑·화불단행을, 혼자서는 일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면 고장난명을 대응한다. 부정형 발문에서는 이 관계와 어긋나는 선지를 정답으로 고른다.

암기 포인트

설상가상·전호후랑·화불단행은 '불행의 연속', 고장난명은 '혼자서는 어려움'이다.

NoteBase

13. 밑줄 친 말이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이 아닌 것은?
① 이번 달은 예상외로 가욋돈이 많이 나갔다.
② 앞뒤 사정도 모르고 고자질을 하면 안 된다.
③ 불이 나자 순식간에 장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④ 두통이 심할 때 관자놀이를 문지르면 도움이 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밑줄 친 합성어를 구성 요소로 나누어 한자어와 고유어가 함께 결합했는지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유어는 우리말에 본래부터 있던 말이고,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 여부는 단어를 실제 구성 요소로 나눈 뒤 각 요소의 어종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욋돈'은 한자어 '가외(加外)'와 고유어 '돈'이 결합한 말이다.
② O — '고자질'은 한자어 '고자(告者)'와 고유어 접미사 '-질'이 결합한 말이다.
③ X — '아수라장'은 한자어 '아수라(阿修羅)'와 한자어 '장(場)'이 결합한 말이므로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말이 아니다. 틀린 판단인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은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관자놀이'는 한자어 '관자(貫子)'와 고유어 '놀이'가 결합한 말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아수라'가 낯설어 고유어처럼 보이는 점이 함정이다. '아수라(阿修羅)'와 '장(場)'은 모두 한자어이므로 '아수라장'에는 고유어가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을 두 구성 요소로 나누고 각 요소가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차례로 표시한다. 발문이 '아닌 것은'인 경우 두 어종이 섞이지 않은 선지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가외+돈, 고자+-질, 관자+놀이에는 고유어 요소가 있지만, 아수라+장에는 고유어 요소가 없다.

NoteBase

14. 다음 중 아래의 작품과 내용 및 주제가 가장 비슷한 것은?

>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텨 내니
> 창 밧긔 심근 매화 두세 가지 픠여셰라
> ᄀᆞ득 ᄉᆞ냉담(冷淡)ᄒᆞᄃᆞ ᄋᆞᆷ향(暗香)은 므ᄉᆞ ᄉᆞ일고
> 황혼의 달이 조차 벼마ᄐᆞ ᄇᆡᆺ최니
> 늣기난 닷 반기난 닷 님이신가 아니신가
> 더 매화 것거 내여 님 겨신 ᄃᆞ ᄉᆞᆸ내오져
> 님이 너ᄅᆞ ᄉᆞᄆᆞᆯ고 엇더타 너기실고
>
> ᄭᅡ고디고 새 닙 나니 녹음이 ᄭᅡ렷ᄂᆞᆯᄃᆞᆫ
> 나위(羅幃) 적막ᄒᆞ고 수막(繡幕)이 뷔여 잇다
>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 ᄀᆞ득 ᄉᆞ시ᄅᆞ ᄒᆞᆫᄃᆞ ᄂᆞᆯ은 엇디 기돗던고
> 원앙금(鴛鴦錦) 버혀 노코 오색선 플텨 내여
> 금자ᄒᆞ ᄉᆞᆫ화이셔 님의 옷 지어내니
> 수품(手品)은ᄏᆞ니와 제도도 ᄀᆞᄌᆞ식ᄀᆞᆮ
> 산호수 지게 우ᄒᆞ ᄉᆞᄇᆡᆨ옥함의 다마 두고
>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ᄃᆞ ᄉᆞᄇᆞ라보니
>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 쳔리 만리 길ᄒᆞ ᄉᆞ뉘라셔 ᄎᆞᄌᆞ갈고
>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
> – 정철, <사미인곡> 중에서

① 고인도 날 몯 보고 나도 고인 몯 뵈
고인을 몯 뵈도 녀던 길 알ᄑᆞ ᄉᆞᄆᆡᆺ니 ᄉᆡ
녀던 길 알ᄑᆞ ᄉᆞᄆᆡᆺ거든 아니 녀고 엇뎔고

② 삼동에 베옷 입고 암혈(巖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볕뉘도 쬔 적이 없건마는
서산에 해 지다 하니 눈물 겨워 하노라

③ 묏버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
손ᄃᆡ자시ᄂᆞᆫ 창 밧긔 심거두고 보쇼셔
밤비예 새 닙 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④ 반중(盤中) 조홍(早紅) 감이 고아도 보이ᄂᆞ다
유자 안이라도 품엄즉도 ᄒᆞ다마ᄂᆞ ᄉᆞ ᄂᆞ
품어 가 반기 리 업슬새 글노 설워ᄒᆞᄂᆞ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사미인곡」의 대목과 각 선지의 구체적 상황 및 중심 정서를 함께 비교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제시된 대목의 화자는 눈 속에서 핀 매화를 꺾어 멀리 있는 임에게 보내고, 임이 그 꽃을 보며 자신을 떠올리고 반겨 주기를 바란다. 핵심은 '임과 떨어져 있음 → 꽃가지를 임에게 보냄 →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람'이라는 상황과 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옛사람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걸어간 길이 앞에 있으므로 자신도 그 길을 따르겠다는 내용이다. 틀린 판단은 이를 제시된 작품처럼 임에게 매화 가지를 보내 그리움을 전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다. 올바르게는 옛사람의 삶과 정신을 본받으려는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다.

② X
추운 겨울에 베옷을 입고 눈비를 맞으며 햇볕도 제대로 쬐지 못한 화자가 서산에 해가 진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는 내용이다. 틀린 판단은 이 선지를 꽃가지를 임에게 보내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상황과 가장 가깝다고 보는 것이다. 올바르게는 화자의 고난과 해가 지는 데 대한 비통함이 중심이며, 매개물을 임에게 보내는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O
화자는 여러 해 자란 가지를 꺾어 임의 창밖에 심어 두고, 밤비에 새잎이 나면 자신인 듯 여겨 달라고 한다. '가지를 꺾어 임에게 보냄'과 '임이 그것을 보고 자신을 떠올리기를 바람'이 제시된 「사미인곡」의 매화 대목과 내용 및 주제 면에서 가장 비슷하다.

④ X
쟁반의 붉은 감을 보고 부모에게 드리고 싶지만, 가져가도 반겨 줄 부모가 계시지 않아 서러워하는 내용이다. 틀린 판단은 '반겨 줄 대상이 없음'을 임과의 이별에서 오는 그리움으로 보는 것이다. 올바르게는 돌아가신 부모를 그리워하는 효심과 안타까움을 드러낸 작품이다.

오답 포인트

②에도 슬픔과 충정으로 읽힐 수 있는 정서가 있고 ④에도 그리움이 나타나므로 주제만 넓게 보면 헷갈릴 수 있다. 그러나 ③은 '가지를 꺾어 임에게 보냄'과 '그 가지를 자신처럼 여겨 달라고 함'이라는 구체적 상황까지 제시된 대목과 일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의 유사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먼저 화자와 대상의 관계, 이별 상황, 정서를 전달하는 매개물, 화자의 행동을 뽑아낸다. 그다음 주제만 비슷한 선지보다 구체적 상황과 표현 방식까지 겹치는 선지를 선택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사미인곡」의 이 대목은 '매화를 임에게 보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람'이며, ③은 '가지를 임에게 보내 나처럼 여겨 달라고 함'이다.

15.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① 발가숭이 ② 깡총깡총
③ 뻗정다리 ④ 오뚝이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주어진 말의 정확한 표준어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어는 공적인 언어생활의 기준으로 정한 말이다. 비슷하게 들리는 말이라도 모음이나 자음이 다르면 표준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표기를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발가숭이'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이다.
② X — '깡총깡총'은 표준어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깡총깡총'이며, 올바른 표준어는 '깡충깡충'이다.
③ O — '뻗정다리'는 뻣뻣하게 뻗은 다리를 뜻하는 표준어이다.
④ O — '오뚝이'는 밑을 무겁게 하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장난감을 뜻하는 표준어이다.

오답 포인트

'깡총깡총'은 실제 발음에서 익숙하게 느껴져 표준어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둘째 음절의 모음이 'ㅗ'인 '깡총깡총'이 아니라 'ㅜ'인 '깡충깡충'이 표준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미가 자연스러운지만 보지 않고 자음과 모음을 포함한 표기 전체를 확인한다. 특히 의성어·의태어는 한 음절의 모음 차이로 표준어와 비표준어가 갈릴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깡총깡총(X) → 깡충깡충(O), 발가숭이·뻗정다리·오뚝이는 표준어이다.

NoteBase

16. 다음 중 아래 글의 내용을 포괄하여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주체 경어법은 용언에 선어말 어미 '-시-'를 넣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만약 여러 개의 용언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라면 일률적인 규칙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 선어말어미 '-시-'를 쓴다. 또한 여러 개의 용언 가운데 어휘적으로 높임의 용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용언을 사용해야 한다.

① 할머니,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세요?
② 어머님께서 돌아보시고 주인에게 부탁하셨다.
③ 선생님께서 책을 펴며 웃으셨다.
④ 할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가셨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여러 용언이 이어질 때의 '-시-' 사용과 어휘적 높임말의 사용을 함께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체 높임법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보통 용언에 선어말 어미 '-시-'를 붙여 실현한다. 여러 용언이 이어질 때에는 대체로 마지막 용언에 '-시-'를 붙이며, '자다→주무시다'처럼 별도의 높임말이 있는 용언은 그 높임말을 사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편찮으세요'는 '아프다'의 높임말 '편찮다'와 '-시-'를 사용한 올바른 표현이지만, 용언이 하나뿐이어서 여러 용언의 '-시-' 사용 원칙까지 포괄하지 못한다. 제시문의 두 원칙을 함께 드러내려면 '할머니께서 편찮아서 쉬셨다'와 같이 고칠 수 있다.
② X — '돌아보시고'와 '부탁하셨다'에 '-시-'가 거듭 쓰여, 여러 용언이 이어질 때 대체로 마지막 용언에 '-시-'를 쓰는 제시문의 설명을 가장 잘 보여 주지 못한다. 제시문의 일반 원칙에 맞춘 표현은 '어머님께서 돌아보고 주인에게 부탁하셨다'이다.
③ X — '책을 펴며 웃으셨다'는 마지막 용언 '웃다'에만 '-시-'를 붙인 예이므로 그 원칙에는 맞지만, 별도의 어휘적 높임말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내용까지 보여 주지는 못한다. 두 원칙을 모두 드러내는 표현은 '할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가셨다'이다.
④ O — '자다' 대신 어휘적 높임말 '주무시다'를 사용했고, 이어지는 마지막 용언 '가다'에도 '-시-'를 붙여 '가셨다'로 표현했다. 제시문의 두 핵심 원칙을 모두 포괄하므로 가장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각각 일부 원칙에는 맞는 자연스러운 문장이어서 정답처럼 보인다. 그러나 질문의 '포괄하여'에 주목하면, 여러 용언의 높임과 별도의 어휘적 높임말 사용을 동시에 보여 주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장에 여러 용언이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마지막 용언의 '-시-'를 살핀다. 다음으로 '자다→주무시다', '먹다→드시다'처럼 별도의 높임말이 있는지 확인하며, '포괄하여'라는 조건이 있으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선지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여러 용언은 대체로 마지막에 '-시-', 별도 높임말이 있으면 그 어휘를 사용한다.

NoteBase

17. 아래의 글에 나타나지 않는 설명 방식은?

> 텔레비전에서는 여러 종류의 자막이 쓰인다. 뉴스의 경우, 앵커가 기사를 소개할 때에는 앵커의 왼쪽 위에 기사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핵심을 추려 제목 자막을 쓴다. 보도 중간에는 화면의 하단에 기사의 제목이나 소제목을 자막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나 세부 자료도 자막으로 보여준다.
>
>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 주는 글자라는 점에서 영화에서 쓰이는 자막도 텔레비전 자막과 비슷하게 활용된다. 그런데 영화의 자막은 타이틀과 엔딩 크레디트 그리고 번역 대사가 전부이다. 이는 모두 영화 제작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된다. 번역 대사는 더빙하지 않은 외국영화의 대사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
> 텔레비전에서는 영화에서 쓰는 자막을 모두 사용할 뿐 아니라 각종 제목과 요약 내용을 나타내기도 하고 시청자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말과 감탄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음성으로 전달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끔 자막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① 정의
② 유추
③ 예시
④ 대조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에 실제로 사용된 설명 방식과 사용되지 않은 설명 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대상의 공통점을 근거로 다른 속성을 추론하는 유추와, 두 대상을 직접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방식을 구분해야 한다.

핵심 개념

정의는 대상의 뜻이나 본질을 밝혀 설명하는 방식이다. 예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이 지닌 차이점을 맞세워 설명하는 방식이다. 유추는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비슷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다른 점도 비슷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방식이다. 이 글은 자막의 뜻을 밝히고, 텔레비전 자막의 사례를 제시하며, 영화 자막과 텔레비전 자막의 쓰임을 대조하지만 유추에 따른 추론은 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 주는 글자'라고 하여 자막의 뜻을 밝혔으므로 정의가 나타난다.
② X — 두 대상의 유사성을 근거로 새로운 속성을 추론하는 유추는 나타나지 않는다. '영화에서 쓰이는 자막도 텔레비전 자막과 비슷하게 활용된다'는 문장은 두 대상의 공통점을 언급한 비교일 뿐, 그 공통점에서 다른 성질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유추가 나타난다'이며, 올바르게는 '이 글에는 정의·예시·대조가 나타나고 유추는 나타나지 않는다'이다.
③ O — 뉴스에서 앵커의 왼쪽 위에 기사 내용을 요약한 제목 자막을 쓰는 일, 화면 하단에 제목이나 소제목을 보여 주는 일 등 텔레비전 자막의 구체적인 사용 사례를 제시하므로 예시가 나타난다.
④ O — 영화 자막은 제목·엔딩 크레디트·번역 대사처럼 제한된 용도로 쓰이는 반면, 텔레비전 자막은 제목·요약·흥미 유발·말과 감탄사 표현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고 차이를 맞세우므로 대조가 나타난다.

오답 포인트

'비슷하게 활용된다'라는 표현만 보고 ②의 유추가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유추가 성립하려면 이미 확인된 공통점을 근거로 확인되지 않은 다른 속성까지 비슷하다고 추론해야 한다. 이 글은 영화 자막과 텔레비전 자막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직접 설명할 뿐 새로운 속성을 추론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의는 '무엇인가', 예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 대조는 '서로 무엇이 다른가'를 확인한다. 유추는 'A와 B가 이 점에서 비슷하므로 다른 점도 비슷할 것이다'라는 추론 구조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단순히 '비슷하다'고 비교한 문장만으로는 유추가 아니다.

암기 포인트

정의는 뜻, 예시는 사례, 대조는 차이, 유추는 공통점에 근거한 새로운 추론이다.

NoteBase

18. 다음 중 (가) ~ (다)를 문맥에 맞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최근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공격적인 환경보호 조치들을 취해왔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살충제와 독성 화학물질의 확산, 동식물의 멸종 위기 등을 우려한 각국의 정부들은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인간 활동이 야생 및 원시 지역에서 만들어 낸 해로운 결과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왔다.
>
> (가) 그러나 이러한 규제 노력 가운데는 막대한 비용을 헛되이 낭비한 것들도 상당수에 달하며, 그중 일부는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했다.
>
> (나) 이 중 많은 조치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테면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수십만 명의 조기 사망과 수백만 가지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
>
> (다) 예를 들어, 새로운 대기 오염원을 공격적으로 통제할 경우, 기존의 오래된 오염원의 수명이 길어져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

① (나) → (가) → (다)
② (나) → (다) → (가)
③ (다) → (가) → (나)
④ (다) → (나) → (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장 첫머리의 접속 표현과 지시 표현을 근거로, 환경 보호 조치의 성과에서 한계와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글의 순서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나) → (가) → (다)

1. (나): 앞 문단에서 소개한 여러 환경 보호 조치가 거둔 성과를 제시한다.
2. (가): '그러나'로 앞의 성과와 대조되는 규제 노력의 낭비와 부작용을 제시한다.
3. (다): '예를 들어'로 (가)의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 경우를 구체화한다.

왜 이 순서인가: (가)의 '이러한 규제 노력'은 앞 문단과 (나)의 환경 보호 조치를 가리키며, (다)는 (가)에서 말한 부작용의 구체적 사례이므로 (가) 뒤에 와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나)가 환경 보호 조치의 성과를 먼저 밝히고, (가)가 '그러나'로 그 한계와 부작용을 제시한 뒤, (다)가 '예를 들어'로 부작용의 사례를 드는 순서가 자연스럽다.
② X — 틀린 부분은 (다)를 (가)보다 앞에 둔 것이다. (다)의 '예를 들어'는 (가)의 일반적 진술인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했다'를 구체화하므로, 올바르게는 (나) → (가) → (다)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그러나'로 시작하는 (가)를 성과를 제시하는 (나)보다 앞에 둔 것이다. (가)의 역접은 앞서 제시된 성과를 받아 전환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나) → (가) → (다)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구체적 예시인 (다)를 가장 먼저 둔 것이다. (다)는 (가)의 부작용 진술이 나온 뒤에 놓여야 하고, 성과를 제시하는 (나)가 그보다 먼저 와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나) → (가) → (다)이다.

오답 포인트

'이 중 많은 조치들이'라는 (나)의 표현만 보고 반드시 첫 문장일 수 없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 표현은 바로 앞 문단에 열거된 환경 보호 조치들을 자연스럽게 받는다. 또한 (다)의 '예를 들어'는 독립적인 새 내용이 아니라 (가)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예시이므로 (가)보다 앞설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 배열에서는 먼저 지시 표현이 받는 대상을 찾고, 다음으로 '그러나'의 대조 관계와 '예를 들어'의 일반 진술·구체 사례 관계를 확인한다. 일반 내용 뒤에 예시가 놓인다는 의존 관계를 적용하면 순서를 확정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성과 제시 → '그러나'로 한계 전환 → '예를 들어'로 부작용 구체화의 흐름이다.

NoteBase

19.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수사법이 쓰인 것은?

>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
>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
> – 윤동주, <슬픈 족속>

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②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③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④ 의(義) 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하여는 칼날을 밟습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같은 말이나 비슷한 뜻의 말을 되풀이하여 의미와 운율을 강조하는 반복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시에서는 각 행의 앞에 '흰'을 반복하여 인물의 모습과 흰색의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한다.

핵심 개념

반복법은 같거나 비슷한 말·구절·문장 구조를 되풀이하여 뜻과 느낌을 강조하는 표현법이다.
직유법은 '같이', '처럼', '듯이' 등의 연결어를 써서 두 대상을 직접 견주는 표현법이다.
은유법은 연결어 없이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동일시하는 표현법이다.
활유법은 생명이 없는 대상에 생물의 동작이나 성질을 부여하는 표현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누님같이 생긴 꽃'은 '같이'를 사용하여 꽃을 누님에 직접 빗댄 직유법이다. 틀린 판단은 이 표현을 반복법으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직유법이다.

② X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은 마음을 물결에 연결어 없이 동일시한 은유법이다. 틀린 판단은 이 표현을 반복법으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은유법이다.

③ X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은 무생물인 파도에 생물의 모습과 동작을 부여한 활유법이다. 틀린 판단은 이 표현을 반복법으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활유법이다.

④ O
'의(義) 있는 사람'의 '의'와 '옳은 일을 위하여'의 '옳은 일'은 뜻이 통하는 말을 되풀이하여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따라서 '흰'을 거듭 제시한 본문의 반복법과 같은 수사법이 쓰였다.

오답 포인트

각 선지가 모두 비유적이고 인상적인 표현이라는 점만 보고 고르면 안 된다. ①의 '같이'는 직유법의 표지이고, ②는 두 대상의 동일시, ③은 무생물에 생물의 동작을 부여한 표현이다. ④처럼 같거나 비슷한 뜻을 되풀이하는지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표현에서 반복되는 말이나 의미를 먼저 찾는다. 그런 다음 선지에서도 동일한 말 또는 비슷한 뜻의 말이 되풀이되어 강조 효과를 내는지 확인하면 반복법을 판별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같은 말·뜻을 되풀이하면 반복법, '같이·처럼'으로 견주면 직유법, 연결어 없이 동일시하면 은유법이다.

NoteBase

20. 밑줄 친 말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① 배가 고파서 공기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다.
② 선출된 임원들이 차례로 인사말을 하였다.
③ 사고 뒤처리를 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④ 이메일보다는 손수 쓴 편지글이 더 낫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합성 명사에서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와 적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이시옷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합성 명사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 소리가 덧나는 등 정해진 소리 변화가 나타날 때 적는다. 합성 명사라고 해서 언제나 사이시옷을 적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공기'와 '밥'이 결합하면 뒷말의 첫소리 'ㅂ'이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공기밥'은 잘못된 표기이며, 올바른 표기는 '공깃밥'이다.

② O
'인사말'은 '인사'와 '말'이 결합한 말이지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인사말'이 올바른 표기이다.

③ O
'뒤처리'는 '뒤'와 '처리'가 결합한 말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뒷처리'가 아니라 '뒤처리'가 올바른 표기이다.

④ O
'편지글'은 '편지'와 '글'이 결합한 말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편짓글'이 아니라 '편지글'이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포인트

모음으로 끝난 말 뒤에 다른 명사가 오면 무조건 사이시옷을 넣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①은 '밥'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공깃밥'으로 적지만, ②~④는 그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두 말이 결합한 합성 명사인지 확인하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지와 뒷말에서 된소리 또는 'ㄴ' 첨가가 나타나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해당 소리 변화가 없으면 사이시옷을 함부로 넣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공깃밥은 사이시옷을 쓰고, 인사말·뒤처리·편지글은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NoteBase

21. 다음 중 아래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어떤 사람은 이곳이 옛 전쟁터였기 때문에 물소리가 그렇다고 말하나 그래서가 아니라 물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린 것이다.
>
> 나의 집이 있는 산속 바로 문 앞에 큰 내가 있다. 해마다 여름철 폭우가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냇물이 갑자기 불어나 늘 수레와 말, 대포와 북의 소리를 듣게 되어 마침내 귀에 못이 박힐 정도가 되어 버렸다.
>
> 나는 문을 닫고 드러누워 그 냇물 소리를 구별해서 들어 본 적이 있었다. 깊숙한 솔숲에서 울려 나오는 솔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는 청아하게 들린다.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격분해 있는 것처럼 들린다. 뭇 개구리들이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교만한 것처럼 들린다. 수많은 축(筑)이 번갈아 울리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노기에 차 있는 것처럼 들린다. 별안간 떨어지는 천둥 같은 소리, 이 소리는 놀란 듯이 들린다. 약하기도 세기도 한 불에 찻물이 끓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분위기 있게 들린다. 거문고가 궁조(宮調)·우조(羽調)로 울려 나오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는 듯이 들린다. 종이 바른 창문에 바람이 우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회의(懷疑)스러운 듯 들린다. 그러나 이 모두가 똑바로 듣지 못한 것이다. 단지 마음속에 품은 뜻이 귀로 소리를 받아들여 만들어 낸 것일 따름이다.
>
>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 중에서

① 직유와 은유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였다.
② 세심한 관찰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③ 일상에서의 경험을 자기 생각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④ 다른 이의 생각을 반박하기 위하여 서술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에 드러난 표현 방식과 내용 전개 방식을 구체적인 문장 근거와 연결하여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표현 방식은 비유·의인·열거와 같이 생각이나 느낌을 드러내는 언어적 방법이다. 내용 전개 방식은 경험 제시, 다른 견해의 반박, 주장과 근거의 연결처럼 글의 생각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이 글은 냇물 소리를 여러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그 소리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는 생각을 자신의 경험으로 뒷받침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글은 냇물 소리를 '솔바람 같은 소리',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종이 바른 창문에 바람이 우는 듯한 소리' 등에 빗대고, 산·창문·악기 등을 사람처럼 움직이거나 우는 것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직유와 은유를 포함한 비유적 표현 및 의인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② X

틀린 부분은 '세심한 관찰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이다. 글쓴이는 냇물이라는 사물의 객관적 본질을 관찰해 알아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같은 냇물 소리도 듣는 사람의 마음속 생각과 감정에 따라 다르게 들리며, '마음속에 품은 뜻이 귀로 소리를 받아들여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한다. 올바르게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대상에 대한 인식이 듣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달라짐을 역설하였다'라고 해야 한다.

③ O

글쓴이는 집 앞 냇물 소리를 여름철마다 들었던 일과 문을 닫고 누워 그 소리를 구별해 본 일을 제시한다. 이러한 일상적 경험은 '듣기 여하에 달린 것', 즉 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리 인식된다는 생각의 구체적 근거가 된다.

④ O

첫머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곳의 물소리가 옛 전쟁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 견해를 소개한 뒤, 글쓴이는 '그래서가 아니라'라고 부정하고 물소리는 듣기에 달렸다고 반박한다. 따라서 다른 이의 생각을 반박하기 위해 서술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②는 글쓴이가 냇물 소리를 자세히 구별해 들었다는 사실을 '세심한 관찰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함'으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이 글에서 다양한 소리의 열거는 냇물의 고정된 본질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소리를 다르게 만들어 낸다는 주장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글의 표현 방식과 전개 방식에 관한 선지는 해당 표현의 존재만 확인하지 않고 그 표현이 뒷받침하는 중심 생각까지 연결하여 판단한다. 특히 '본질을 이해했다'와 '주관적으로 인식했다'는 반대 방향의 설명이므로, 결말의 중심 문장과 대조하면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이 글의 핵심은 '소리의 본질을 관찰함'이 아니라 '마음이 소리를 만들어 냄'이다.

NoteBase

22. 밑줄 친 '보다'의 활용형이 지닌 의미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어쩐지 그의 행동을 실수로 볼 수가 없었다.
②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팔 사람은 없다.
③ 그는 상대를 만만하게 보는 나쁜 버릇이 있다.
④ 날씨가 좋을 것으로 보고 우산을 놓고 나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동사 '보다'가 문맥에 따라 '판단하다·여기다'와 '어떤 일을 겪다·당하다' 중 어느 의미로 쓰였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다'는 대상의 성격이나 상태를 판단하여 여기다는 뜻으로 쓰일 수 있고, 손해·이익·효과처럼 어떤 결과를 입거나 얻다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 문항에서는 목적어를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어떤 결과를 겪는지를 살펴 의미를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그의 행동을 실수로 볼 수가 없었다'의 '볼'은 그의 행동을 실수라고 판단하거나 여길 수 없었다는 뜻이다. '어떤 일을 겪다'로 해석하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실수라고 판단하다·여기다'이다.

② O
'손해를 보면서'의 '보면서'는 손해를 입거나 당하면서라는 뜻이다. 나머지 선지의 '판단하다·여기다'와 달리 어떤 부정적 결과를 겪는다는 의미이므로 정답이다.

③ X
'상대를 만만하게 보는'의 '보는'은 상대를 만만하다고 판단하거나 여기는 뜻이다. '손해를 입다'와 같은 경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만만하다고 판단하다·여기다'이다.

④ X
'날씨가 좋을 것으로 보고'의 '보고'는 날씨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예상한다는 뜻이다. '어떤 결과를 입다'로 해석하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다·여기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에 같은 동사 '보다'의 활용형이 나타나므로 형태만 보면 구별되지 않는다. 특히 ②의 '손해를 보다'를 '손해를 살펴보다'처럼 이해하면 안 되며, 여기서는 '손해를 입다'라는 관용적인 의미로 쓰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를 B로 보다', 'A가 어떻다고 보다'의 구조이면 대체로 '판단하다·여기다'로 바꾸어 본다. '손해·이익·효과를 보다'처럼 결과를 목적어로 취하면 '입다·얻다·경험하다'로 바꾸어 문맥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실수로 보다·만만하게 보다·좋을 것으로 보다 = 판단하다, 손해를 보다 = 입다.

NoteBase

23. 다음 중 '을'이 '동의의 격률'에 따라 대화를 한 것은?

① 갑: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을: 무슨 일이지요? 지금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② 갑: 글씨를 좀 크게 써 주세요.
을: 귀가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③ 갑: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을: 저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서 제대로 도와 드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④ 갑: 여러 침대 중에 이것이 커서 좋은데 살까요?
을: 그 침대가 크고 매우 우아해서 좋군요. 그런데 좀 커서 우리 방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상대방과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불일치는 줄이고 일치는 늘리는 '동의의 격률'이 대화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의의 격률은 상대방의 의견에 곧바로 반대하기보다 일치하는 부분을 먼저 드러내고, 불일치하는 부분은 완곡하게 표현하는 예의 원리이다. 핵심은 '동의할 부분 제시 → 반대 의견 완화'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을은 갑의 도움 요청에 급한 일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고 있다. 서로의 의견에 대한 일치점을 먼저 드러낸 대화가 아니므로 동의의 격률에 따른 사례라고 볼 수 없다. 틀린 판단은 '동의의 격률에 따른 대화'라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요청을 거절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한 대화'이다. 동의의 격률을 살리려면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처럼 공감하는 뜻을 먼저 밝힐 수 있다.

② X
갑의 '글씨를 크게 써 달라'는 요청을 을이 '큰 소리로 말해 달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는 의견의 일치와 불일치를 조절한 것이 아니라 '크게'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 대화이다. 틀린 판단은 '동의의 격률에 따른 대화'라는 부분이며, 올바른 응답은 '네, 글씨를 더 크게 쓰겠습니다.'이다.

③ X
갑은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고 낮추어 말하고, 을도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낮추어 말한다. 을의 말은 자신의 능력을 낮추는 겸양의 태도에 가깝고, 상대의 의견에 대한 불일치를 줄인 사례는 아니다. 틀린 판단은 '동의의 격률에 따른 대화'라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자신을 낮추어 말한 대화'이다.

④ O
을은 먼저 '그 침대가 크고 매우 우아해서 좋군요.'라고 하여 침대에 대한 갑의 긍정적 평가에 동의한다. 이어 '그런데', '좀', '~것 같아요'라는 표현으로 침대가 방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완곡하게 제시한다. 일치하는 점은 크게 드러내고 불일치는 줄여 말했으므로 동의의 격률에 따른 대화이다.

오답 포인트

④에 반대 의견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의 격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기 쉽다. 동의의 격률은 반대 의견을 전혀 말하지 않는 원리가 아니라, 먼저 일치점을 밝히고 '그런데', '좀', '~것 같아요' 등으로 불일치를 완화하는 원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대의 평가와 같은 부분을 먼저 인정했는지, 이어지는 반대 의견을 접속 표현이나 완곡한 말로 약하게 제시했는지를 확인한다. '맞는 점 인정 + 부드러운 반대'의 구조이면 동의의 격률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동의의 격률은 일치는 크게, 불일치는 작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원리이다.

NoteBase

24. 아래의 글에서 밑줄 친 단어들 중 고유어에 해당하는 것은?

> 절간의 여름 수도(修道)인 하안거(夏安居)가 끝나면 스님들은 바랑을 메고 바리를 들고서 동냥 수도에 나선다. 이 동냥이 경제적인 구걸로 타락된 적도 없지 않지만 원래는 중생으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 기회를 줌으로써 업고(業苦)를 멸각시키려는 수도 행사였다.

① 동냥
② 구걸
③ 중생
④ 자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밑줄 친 단어를 어종에 따라 고유어와 한자어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유어는 한자어나 외래어가 아니라 본래부터 우리말로 쓰여 온 말이다. 한자어는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이 문항에서는 단어를 한자로 적을 수 있는지와 그 말의 기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동냥'은 고유어이므로 정답이다.

② X
'구걸'을 고유어로 분류한 것이 틀렸다. '구걸(求乞)'은 한자어이므로, 올바르게는 '구걸은 한자어이다'라고 해야 한다.

③ X
'중생'을 고유어로 분류한 것이 틀렸다. '중생(衆生)'은 한자어이므로, 올바르게는 '중생은 한자어이다'라고 해야 한다.

④ X
'자비'를 고유어로 분류한 것이 틀렸다. '자비(慈悲)'는 한자어이므로, 올바르게는 '자비는 한자어이다'라고 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구걸’, ‘중생’, ‘자비’는 일상에서 익숙하게 쓰여 고유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각각 求乞, 衆生, 慈悲로 이루어진 한자어이다.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말의 기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단어가 한자에 기초한 말인지 먼저 확인한다. 한자에 기초한 말은 한자어로, 한자어나 외래어가 아니면서 본래부터 우리말로 쓰인 말은 고유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동냥은 고유어이고, 구걸·중생·자비는 한자어이다.

NoteBase

25. 다음 중 밑줄 친 단어를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표기한 것은?

내 이름은 <u>복연필</u>이다. 어제 우리는 <u>청와대</u>를 다녀왔다. 작년에 나는 <u>한라산</u>을 등산하였다. 다음 주에 나는 <u>북한산</u>을 등산하려고 한다.

① 복연필 - Bok Nyeonphil
② 청와대 - Chungwadae
③ 한라산 - Hanrasan
④ 북한산 - Bukhansan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인명과 지명을 적을 때 철자와 음운 변화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명은 성과 이름을 띄어 쓰고, 이름의 각 음절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며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지명은 붙여 쓰며, 표준 발음에서 일어나는 자음 동화와 유음화 등은 로마자 표기에 반영한다. 또한 ㅓ는 eo, ㅜ는 u로 적고, ㅍ은 p로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복연필'은 성 '복'과 이름 '연필'을 구분하여 Bok Yeonpil로 적는다. 틀린 표현은 'Bok Nyeonphil'이며,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를 반영한 'N'과 ㅍ을 적은 'ph'가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복연필 - Bok Yeonpil'이다.
② X — '청와대'의 '청'에 있는 ㅓ는 eo로 적으므로 Cheongwadae가 된다. 틀린 표현은 'Chungwadae'이며, 올바르게는 '청와대 - Cheongwadae'이다.
③ X — '한라산'은 [할라산]으로 발음되는 유음화를 반영하여 Hallasan으로 적는다. 틀린 표현은 'Hanrasan'이며, 올바르게는 '한라산 - Hallasan'이다.
④ O — '북한산'은 표준 발음 [부칸산]을 반영하여 Bukhansan으로 적으므로 제시된 표기가 맞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는 인명도 일반 단어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생각하기 쉽고, ③에서는 한글 글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옮겨 Hanrasan으로 적기 쉽다. 인명은 이름 내부의 음운 변화를 반영하지 않지만, 지명은 표준 발음의 음운 변화를 반영한다는 차이가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인명인지 지명인지 구분한다. 인명이면 성과 이름을 띄고 이름 내부의 음운 변화는 반영하지 않으며, 지명이면 붙여 쓰고 표준 발음의 자음 동화·유음화 등을 반영한다. 그다음 ㅓ=eo, ㅜ=u, ㅍ=p와 같은 기본 대응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인명은 성·이름을 띄고 이름의 소리 변화를 적지 않으며, 지명은 붙여 쓰고 표준 발음의 소리 변화를 반영한다. 한라산은 Hallasan, 북한산은 Bukhansan이다.

NoteBase